

북중러 접경지역 시찰 및 동북아 기반시설물 구축 세미나 참가기



윤 세 의 |

경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syyoon@kyonggi.ac.kr



김 문 모 |

신구대학 토목과 부교수
munmo310@shingu.ac.kr

1. 개요

최근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남북수자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학회(KWRA), 대한토목학회(KSCE), 한국교통학회(KST), 한국방재학회(KOSHAM),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KPA)가 공동 주관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YUST), 한국교통연구원(구 교통개발연구원)(KOTI), 한국수자원공사(KWRA)가 후원하여 40여명의 관계전문가들이 2005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의 접경지역의 교통망과 하천을 시찰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학회에서는 송재우 회장을 비롯하여 8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명단은 표1과 같다.

이번 일정은 세미나와 접경지역 시찰로 구성되며 세미나는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되었고, 시찰은 러시아 접경지역의 철도시설과 압

표 1. 우리학회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비고
송재우	홍익대학교	회장
안경수	인천대학교	남북교류위원장
전시영	원광대학교	수문분과위원장
윤세의	경기대학교	기획이사
박창근	관동대학교	지하수분과위원장
김문모	신구대학	세미나참석
이광만	수자원연구원	세미나참석
김계현	인하대학교	세미나참석

표 2. 주요 일정

일 자	일 정
6월 25일	인천공항 출발, 심양 도착
6월 26일	훈춘, 러시아 그라스키노, 북중러 접경지 방문
6월 27일	동북아 교통망 및 수자원 세미나
6월 28일	두만강 지역 시찰
6월 29일	압록강 지역 시찰
6월 30일	심양출발, 서울도착

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수자원분야 시찰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일정은 표2와 같다.

2. 세미나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수자원 분야에서 4편, 교통 분야에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두개의 발표장에서 발표되었으며, 발표내용은 표3과 같다.

세미나 내용 중 수자원 분야에서는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광만 박사의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토론자로는 Yanbian Water

표 3. 논문발표 내용

논문 제목	발표자	비고
Study on the Water Utiliz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Yanbian Prefecture	Yanbian Design Institute of Water and Hydropower(Chang Min Choi)	중국
Flood and Drought Protection Works in Yanbian Prefecture	Water Resources Department of Yanbian Prefecture Water Conservancy(Qian Shi)	중국
Holistic Hierarchical Approach to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Tumen International River	한국수자원공사(이광만)	한국
Problems of Integration for Sustainable Nature Use in Boundary Territories(Russia-China-DPRK)	FEBPGI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Anatoly N. Kachur)	러시아
Cooperation of Transporta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도시교통연구소(박용훈)	한국
Railway Freight Demand Forecasting of Eurasia Region	한양대학교(강경우)	한국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ld Region for Asphalt	인천대학교(허정도)	한국
Transport Network for Korea and North-East Region	교통개발연구원(권영인)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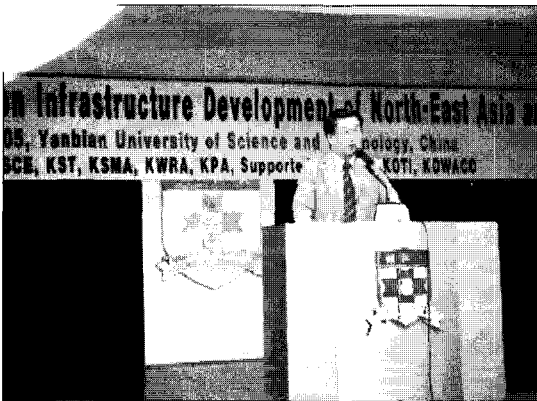


사진 1. 개회사를 하는 송재우 회장



사진 2. 수자원 분야 세미나 발표 장면

Conservancy Bureau 의 Che Zhong Le, 경기대학교의 윤세의 교수, 원광대학교의 전시영 교수, 관동대학교의 박창근 교수, 인하대학교의 김계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다.

특히, 세미나에 앞서 이번 세미나의 개최지인 연변과학기술대학(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소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변과학기술대학(총장 김진경)은 1992년 개교하여 1994년에 4년제로 승격하였고, 현재 1600여명의 학생과 200여명의 교수진이 있으며, 중국의 1600여개 대학 중 100대 중점육성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학부는 건설공학부 등 8개의 학부에 건축학 전공, 토목공정 전공 등 13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3. 전체 세미나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1은 개최사를 하는 송재우 수자원학회장의 모습이고, 사진 2는 수자원분과 세미나 발표 장면이며, 사진 3은 세미나가 끝난 후 전체 세미나 참석자들을 찍은 모습이다.

3. 시찰

이번 시찰은 주로 교통시설과 하천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졌는데 교통시설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철도 시설의 시찰에 중점을 두었고 수자원분야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천시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 시설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았으며, 교통량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두만강과 압록강의 경우 유량은 우기라서 그런지 많았으며, 황토색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특히 두만강의 혼춘에서 도문 구간에는 홍수로 인한 소규모 하천의 제방 유실이 많이 보였다. 사진 4는 두만강 도문에서 상류로 보고 찍은 것이며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 교각을 기준으로 좌측은 북한, 우측은 중국이다. 교각의 색깔이 북한 쪽은 흰색 중국 쪽은 붉은 색이다. 두만강의 도문지역과 압록강의 집안 쪽에서 작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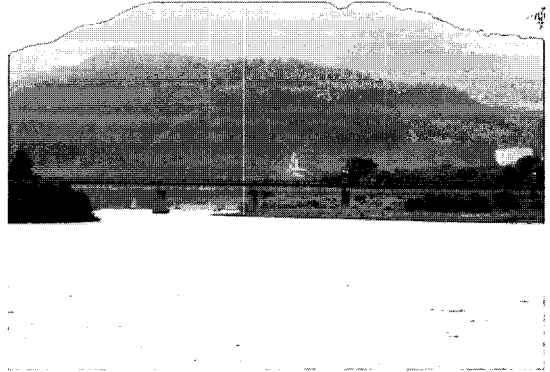


사진 4. 도문에서 두만강 전경

로 북한 하천 연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이 허용되고 있었다. 북한의 경계에 있는 두 강을 북한 쪽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중국쪽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훗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한이 수자원을 공동 개발 관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4. 맺음말

최근 남북화해 무드와 더불어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러시아,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주축이 되는 나라들의 협력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번 세미나 및 시찰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현재는 국경에 의해 강제적으로 교통 및 수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될 경우 교통의 개방 및 수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교통 물류의 상호 개방 및 수자원의 공동이용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북아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면 토목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